

대지진 70여일 네팔돕기 불교계 후원 행렬

제주 관음사 2500만원
동국대의료원 3000만원
‘아름다운 동행’ 이어져

지진 발생 70여일이 지났지만 네팔을 돕기 위한 불교계 후원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성호스님)가 지난 7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주지 성호스님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네팔인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스님과 신도들이 마음을 내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동국대의료원(원장 태석기) 또한 아름다운동행에 3000만원을 전달하며 네팔 돕기에 동참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기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불구하고 동국대의료원 산하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것으로, 일산병원이 1749만원을, 경주병원 1000만원, 분당한방병원 100만원, 의학계열 대학 교직원들이 151만원의 기금



태석기 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동국대의료원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을 예방해 네팔 구호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을 모연해 총 3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전달식에서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은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태석기 원장에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동국대의료원

임직원들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십시일반 금액을 모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후원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지진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서울노인복지센터 모연금 일부
지구촌공생회 네팔구호기금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스님)가 지난 2일 센터 내 경로식당에서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에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한 성금 11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 5월 2일부터 25일까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금행사 ‘2015 등축제’ 일환으로 개최한 무료급식 후원행사 ‘공양미 삼백석’을 통해 모인 기금 중 일부를 기탁한 것이다.

전달식에서 등축제 모금단 대표를 맡은 이문근 어르신은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이 큰 아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원한다”며 “소중하게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네팔 구호 기금으로 모인 기금은 총 2억6000여만원이 넘었다. 지구촌공생회는 전달받은 기금을 모아 지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찾아 재건 및 복구 지원을 위한 2차 구호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봉은사역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 ‘각하’

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
종교편향 논란 ‘중지부’

개신교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적합한 소송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봐도 결론은 같다”며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2단계 구간 역명제정과 관련, 2014년 3월 강남구에서 지역주민 및 구지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4월9일 서울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역사성 있는 ‘봉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 지난 2014년 12월18일 도시철도 역명 확정 고시를 통해 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명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과 일부 기독교계 언론은 9호선 연장개통을 한 달여 앞둔 2월부터 특정종교 편향이라며 봉은사역이란 이름을 폐지하고 코엑스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역명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급기야 지난 3월20일 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천년고찰 봉은사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무시한 채 종교편향으로 몰아 역명폐지를 요구했던 개신교의 억지주장은 오히려 종교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반축을 사기도 했다.

어현경 기자 eorald@ibulgyo.com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만불회 학성스님 임명

만불회 회주 학성스님(사진)이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불회 회주 학성스님을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임명식에 이어 학성스님은 “해인사는 모든 불교도의 마음의 고향이자 수행의 도량이다. 한국불교 인재의 산실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주지 스님을 선출할 때까지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해인사가 한국불교의 중심사찰이자 대표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태규 기자

선학원, 독자행보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엄태규 기자의
현장에서
che11@ibulgyo.com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종단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선학원측의 공식 입장이다. 선학원이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지난 7일 예정됐던 총무원장 스님과 선학원 이사진들의 만남이 결국 무산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따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단과 선학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사항을 규정한 종헌 제9조 3항에 대해 대화를 제안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대화 제안은 중앙총회의원 2석 배정,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등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협의안을 포함해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은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다. 이번 제안에 앞서 종단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왔다.

왜색화 된 불교를 거부하고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회복해 종단과 함께 불교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자는 인식에서다. 지난 3월 출범한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역시 선학원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선학원 측은 이번에도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이 존재하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종단과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 거부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독자적인 법인 운영의 길을 걷고 있다. 종단 삼보장재는 모두 불교의 자산이며 공용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법인관리법의 취지도 왜곡하고 있다. 종단의 대화 노력은 외면한 채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이자 종도로서 함께 길을 가야 한다. 단순한 탈종을 넘어서 새로운 종단을 자처하고 있는 선학원 이사진의 행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선학원의 설립정신과도 거리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는 선학원 이사진이 기존 입장을 바꿔 설립정신을 회복하고 종단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스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장그래실리기운동본부’, 문화노동자들의 공동체 ‘일과노래’와 함께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에는 쌍용차, 기흥전자, KTX여승무원 등 비정규·해고 노동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7월1일 중무회의)



해인스님
철곡 묘향사



중천스님
서울 용덕사



지혜스님
양양 명주사



해공스님
강릉 관음사



자윤스님
상주 흥룡사



중성스님
영덕 영해사



효승스님
경주 주사암



원공스님
영주 관음암



여준스님
울진 동림사



지용스님
통영 범문사



석초스님
군산 은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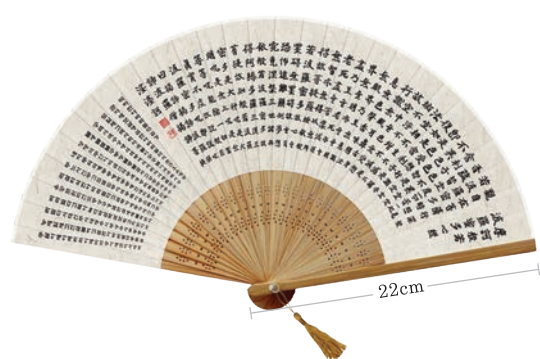
정목스님
제주 동법사

반야심경 전통부채 (실크천, 오죽선)

선물용·대량주문 문의 환영!!

〈실크천 부채〉

〈오죽선 부채〉



템플스테이 선물용 부채 제작전문

전통부채 주/문/제/작

〈전통부채 구성〉

실크천 부채	한문 반야심경	22cm x 30살대
오죽선 부채	한글 반야심경	25cm x 25살대

가격: 3,500원 (케이스, 매듭 포함)
* 10개 미만은 택배비 2,500원 별도



〈접은상태 및 케이스〉

전통부채 국내 제작업체

A3기획

서울시 중구 약수동 349-70번지 2층
02-2273-3223 / 010-5273-3978

www.a3fan.co.kr

니를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사찰여름수련회

불교신문 안내광고 접수받습니다

• 광고문의: 02)730-4490 Fax: 02)730-4487
• www.ibulgyo.com e-mail: ad4490@naver.com

